

# 지역 기업간 협력·글로벌 경쟁력 강화 대단위 기업조직 만든다

### 가칭 광주·전남선도기업협회 내달초 창립

### 기계·철강·자동차부품 등 150여개社 참여

광주·전남지역 기업간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능동적으로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하기 위한 대단위 기업조직이 만들어진다.

10개 분과, 150여개 회원사들로 구성된 (가칭)광주·전남선도기업협회는 7월초 발기인 대회, 창립총회 등을 거쳐 7월 말이나 8월 초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선도기업협회는 자동차부품·프레스금형 등을 생산, 올해 800억원의 매출이 예상되는 DK산업의 김보곤

(49) 대표가 회장을 맡고 1명의 수석 부회장, 분과위원회를 10명의 부회장을 두는 체제를 갖추게 된다.

10개 분과위원회는 기계·철강을 비롯해 부품·소재, 광산업, 자동차, 금형, 생명·식품, 조선, 화학·환경·에너지, 전기·전자, 문화·디자인 등 첨단산업에서부터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회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분과위원회는 특히 ▲위원회 간 연계 융합사업 기획 ▲소속회원 상호간 정보교류 및 공동협력사업 발굴 ▲해당분야 산학연관 교류 및 협

력사업 발굴 ▲소속 회원사 애로해결 및 정부·지자체·지원기관에 대한 정책건의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선도기업협회는 이사회와 사무국 외에 정책자문단과 운영자문단에 전문가들을 대거 포진시켜 협회 활동에 자극을 주고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로 했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기업지원단이 포함된 정책자문단은 선도기업협회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운영과 지원사업 등에 대한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대학·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운영자문단은 회원사들의 기술개발, 기술지도, 기술애로 해결, 전문인력 양

성 등에 앞장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기술확보에 나선다.

이밖에 선도기업협회는 협회와 회원사 홍보를 위해 연간 2회 저널(소식지)을 발간하고 홈페이지를 구축을 서두르는 한편 올 안에 CEO 경영혁신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김보곤 회장은 "전체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 점유율이 99%가 넘는 광주·전남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심각하게 고려, 중소기업 발전이 곧 지역발전의 디딤돌이라는 인식을 갖고 협회 창립을 주도하게 됐다"면서 "추진하는 사업 하나하나에 혼을 심는다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더 많은 회원사들이 도움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기아 로체 이노베이션 '연비' 최고

### 광주·전남 연비왕 선발대회 ... 14.8km/ℓ 이상씨 우승

국내 최초의 경제운전 안전시스템인 '에코 드라이빙'을 장착한 기아차의 하이테크 중형세단 '로체 이노베이션(LOTZE innovation)'이 광주·전남에서 뛰어난 연료절감 효과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기아차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재영 이사)는 지난 28일 '로체 에코드라이빙 광주전남 연비왕 선발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행사에 참여한 7개 팀의 광

주에서 영광 법성포까지 왕복 120km의 구간을 주행하면서 로체 이노베이션의 성능과 연비를 체험했다.

대회 결과 14.8km/ℓ의 연비를 기록한 이상씨가 우승해 30만원의 상금과 다음달 12일 개최되는 전국 로체 에코 드라이빙 콘테스트 출전권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7개 팀의 평균 연비는 13.8km/ℓ로 로체 공인 연비 11.5km/ℓ 보다 2.3km/ℓ 높은 것으로 나타나 로체 이노베이션의 에코 드라이빙 시스템의 경제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에코 드라이빙 시스템은 계기판 내에 경제운전 램프(ECO 램프)를 통해 가장 경제적인 연비로 주행 가능한 운전영역을 알려줌으로써 운전자의 경제운전을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고유가 시대의 연료절감을 위한 탁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8일 중국 난징시에서 난징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왼쪽부터 난징시 상무부시장, 짜양훙춘 난징시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김정기 상해총영사, 박찬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화학부문 회장.

## 기업들 "7월 경기 더 안좋다"

### 경기실사지수 41개월만에 최저 ... 어두운 하반기 경제 예고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Business Survey Index)가 41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하반기 어두운 경기 전망을 예고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600대 기업(552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BSI를 조사한 결과, 물가불안과 소비위축에 따른 내수 경기 침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시위로 인한 정국불안, 노동계의 하부(夏脚)에 대한 우려 등의 영향으로 83.2를 기록했다. 이는 환율 하락과 내수경기 침체가 심각했던 2005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BSI 전망치가 기준치인 100을 넘

으면 해당기간의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음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임을 각각 의미한다.

기업들이 이처럼 7월 경기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하반기에도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다 대외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산업별로는 노사관계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제조업(83.6)과 고유가료 원가 부담이 커진 전력·가스업 등 비제조업(79.1)이 모두 큰 폭의 부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연필뉴스

## 금호석화, 中 합성수지원료 공장 준공

### 난징시에 1억달러 규모 합작사 설립

금호석유화학이 중국에 합성수지원료 생산공장을 세웠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8일 중국 난징시(市)에서 광웨이커 장수성 부시장, 짜양훙춘 난징시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화학부문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난징공장 준공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금호석유화학과 중국 난징시의 대표적 민영기업인 GPRO가 50대 50의 지분으로 총 1억1천300억 달러를 투자해 난징화학공업원(NCIP)내 19만 5천500㎡ 부지에 건립한 이 회사의 법인명은 난징금포금호화학유한공

사이다.

박삼구 회장은 "난징금포금호화학유한공사는 중국내 금호석유화학 합작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중국사업의 첫 걸음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면서 "난징시와 장수성 뿐 아니라 중국 제1의, 나아가 세계 제1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품목은 합성수지인 폴리프로필렌 글리콜(PPG), 프로필렌 옥사이드(PO), 코스틱소다(CS) 등이며 각각 연산 5만t(PPG), 8만t(PO), 10만t(CS) 규모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무역협회 수출중소 대상 '토요무역실무학교' 운영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김병술)는 전남도와 공동으로 광주주무역회관에서 무역능력이 부족한 수출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토요 무역실무학교'를 운영한다.

토요 무역실무학교는 기업들의 경영현황 여건을 고려하고, 수출기업들

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주말에 교육을 실시하고, 커리큘럼은 환율관리 및 수출입절차, 전자무역 등을 중심으로 기획됐다.

토요 무역실무학교는 지난 28일에서 7월12일, 7월29일, 8월9일 4회에 걸쳐 운영되며,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광주주무회관 교육장에 참가등록을 하면 수강이 가능하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중소 경기 '빨간불'

### 내달 전망조사 전달보다 하락

다음달 경기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전망이 최근 3년 사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중소기업 경기에 빨간 불이 켜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체 1천395개사를 대상으로 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7월 중소기업 연합전망 건강도지수(SBHI)가 전달보다 9.3P 낮은 78.2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SBH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의 하나로 100보다 높으면 다음달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업체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많음을,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

업황전망 SBHI가 78.2를 기록한 것은 2005년 2월 74.5로 떨어진 이래 41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이며 전체 20개 업종 전망치가 모두 기준치(100.0)를 밑돈 것도 최근에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연필뉴스

## 中企 EU수출 돕는다

### 광주·전남중기청 '수출증명서' 사전등록 지원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준근)은 EU(유럽연합) 수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EU 수출증명서라고 불리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의 사전등록을 지원한다.

지난 6월부터 올 말까지 실시되고 있는 REACH 사전등록을 마칠 경우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에 따라 등록기한을 최대 18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수출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특지원사업'의 지원범위에 REACH 사전등록을 포함시켜 EU 화학물질청(ECHA)에 사전등록을 할 때까지의 비용을 업체당 최대 2천 5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특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신뢰도 향상과 수출에 필요한 해외규격

인증의 획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6개 제품인증과 5개 시스템 인증을 지원한다.

이같은 해외규격인증 받기 위해 중소기업은 필요한 제품시험·분석, 인증수수료 등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의 50~70% 지원받을 수 있다. 제품인증의 경우 모든 중소기업이 신청가능하며, 시스템인증은 상시 종업원 20인 이상으로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이면 된다.

현재 진행중인 제 4차 사업의 신청기간은 오는 7월10일까지이며, 온라인(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신청한 후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현재까지 광주·전남지역 29개사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돼 46건의 인증획득을 진행중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대리점 모집**

SM 엔지니어링

191-444-823-11539

**가발**

최신제품 70만원

초슬림!!

이탈가능상 품종 직면시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대표전화 062-573-3200, 673-4012

분장미수제 011-107-5239